



어떤 것도 그냥 나한테로 밀어넣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스님,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후미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많이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그런 영령(英靈)들이 큰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셨는지요. 한 말씀 알려주십시오.

큰스님: 인연이 별다르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돌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에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도를 한 거죠. 환도를 해서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었다가 여래가 죄 된 거죠. 부처가 다 봤다 이 소리죠. 이 모두가 이렇게 깊고요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자2(남):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고 다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그 다음에 뭐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그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라고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큰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 붙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적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은 팔식이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八)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識)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돌아서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돌아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2(남):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

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생각 일어났다가 한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은,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큰스님의 말씀을...

큰스님: 하하하. 만날 말씀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여기 걸어들 때에 한 발 떴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떴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리앉았다, 일어났다 가리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려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리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떴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떴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겠습니까? 한 발 떴어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떴어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나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리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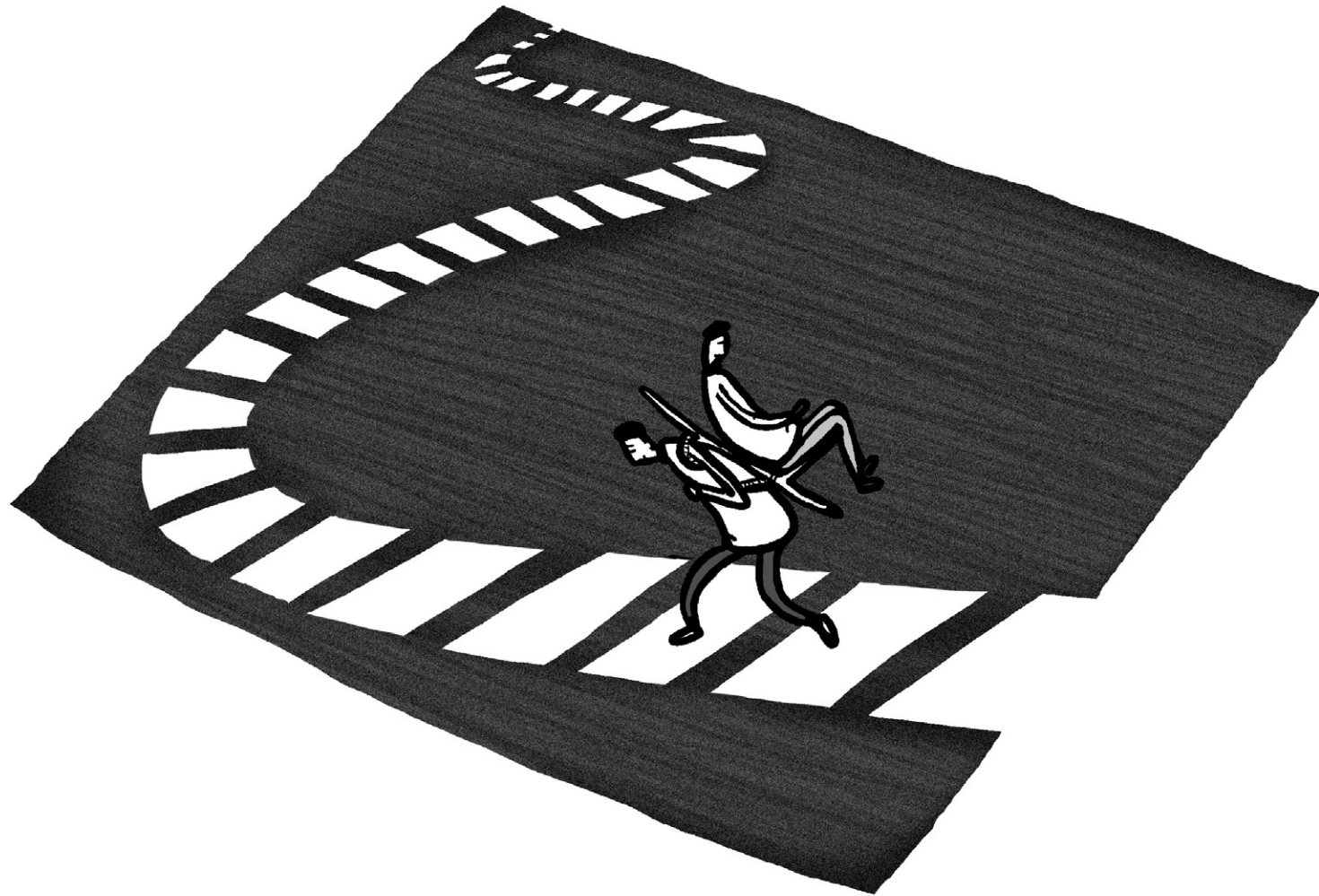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데 금방 딴 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 걸로 돌아가고 딴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돌아 아닌 것입니다. 돌아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은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은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은 악이 됩니다. 써움을 하려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하려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질문자2(남): 예, 그러시다면은 그 한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돌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돌아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같이 이해가 되는 걸로 되겠습니까?

큰스님: 번뇌심이,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그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저 수행하는 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팔죽을 쑤는데 팔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쳐다라.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팔죽 솔이라면 팔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건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나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하고 천 개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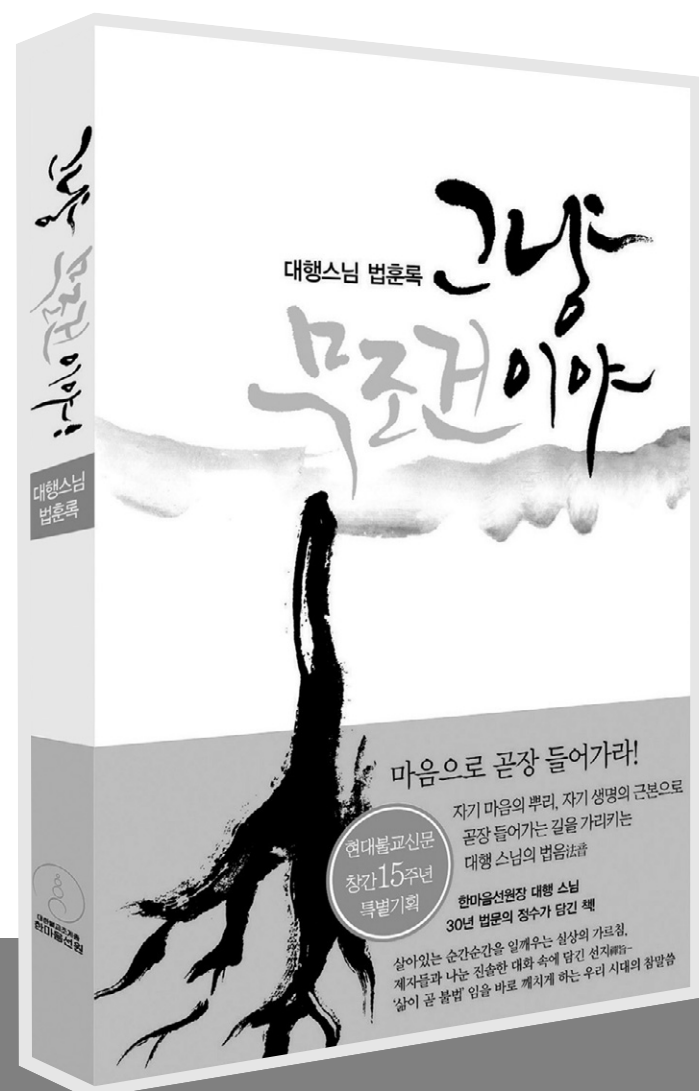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속지 말고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다 제대로 되놓으세요

29면에서 계속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뉘었습니다.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그 마음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리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들어오듯,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들어오듯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지요.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2(남):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를 결코 깎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까.

크스님: 네.

질문자2(남):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크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물질문명이라는 이 편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금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크스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깎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려 버리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은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그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 문명이 편리해지다 보니 여기에 깎달리고 있는 이런 저희들의 이 중생심이 과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과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코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한 먼 거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은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알려주시지요.

크스님: 이 마음이란 말고 가깝고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지주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지주라면 전지주를 이쪽에서 하나 대주면은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은 그 모두가 밝으니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좇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마음이 같이 돼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그 천백억화신 자체의 손이 한

손이 돼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은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끌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

한 것이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고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알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전에 나를 전견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굶어서 부수림을 만들어서 되물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지주가 불었다 떨어졌다 불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들습니까? 그러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될 수가 있거든. 불었다 떨어졌다, 불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십중팔구는 되죠.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은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데 어찌 무엇이 있으랴' 하는 그런 말씀들과 또 어떤 스님들께서는 '깨닫고 난 뒤에는 보림(保任)을 잘해야 된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을 것이라도 있지만은 깨닫고 난 뒤에 보림을 잘못하면은 그건 또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런 크신 스님들의 말씀이 아직까지 공부하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의문으로 돼있습니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림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크스님: 깨닫고 나서 보림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건너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허허. 왜냐하면은 내가 자성부(父)와 자성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싹이 낫을 뿐이지 자란 것은

나투는 도리를 몰라. 아가 전지주와 전지주를 대어주고 때어주고 대어주고 때어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은,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데, 즉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뉘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뉘는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쥐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라고 하고 내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漸修)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돌아나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가 둘이 다 둘이 아니 다 이겁니다. 하하하.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나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행복을 받고, 행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하실 분 또 없습니까?

질문자3(남자 어린이): 네. 저는 주인공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번에도 병이 났는데 주인공을 믿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믿어도 안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스님: 허허.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는 뜻이 있어.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도 있고 앞으로 그냥 갈 때도 있지? 응. 어떻게 바로 가는 것만 가는 거고 이렇게 뒤로 가는 거는 가는 게 아니겠어요?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도 있지? 그러니까 안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거야.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거든. 응? 후퇴를 해야 살지? 그렇기 때문에 후퇴하는 것도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그 살리기 위해서 후퇴를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것도 법, 전진을 하는 것도 법이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 래야만이 그 도리를 알게 돼.

※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싸울 때도 전진할 때가 있고 후퇴하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면
뒤로 물러서야 살게 되듯이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지주에다가 이쪽 전지주를 불어주면은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불어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불어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준 사이가 없다 이거야. 왜냐?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불어 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서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라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의 학이라야 되고, 심성과학이라야 되고, 심성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람이라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이 있으니까 못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까 못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까 너는 못하고...' 이런 이유가 불되면은 그것이 전지주와 전지주가 어떻게 불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에 불이고 전지주를 한데 합치는 거죠. 이걸 불일까 말까, 이거 불일까 말까 하고 불붙습니까?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불어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지고 싶으면은 잠지고 먹고 싶으면은 먹어야 이 소립니다.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2(남): 예. 크스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 크스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어서, 대중들께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마는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깨달을 것이 없다. 한 물건도 없는데,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는

아닙니다. 예? 자라려면은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이나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버렸습니까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버렸습니까,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이 형식적으로만 끊어버렸지 수행하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漸修)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은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림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매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